



✎ Basilio Gimo, David Ker
 📧 Carol Liddiment
 📧 Michelle Kim
 🗣️ Korean
 📖 Level 2



어마는 왜 튼이 뽕까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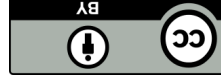
Storybooks Canada

storybookscanada.ca

어마는 왜 튼이 뽕까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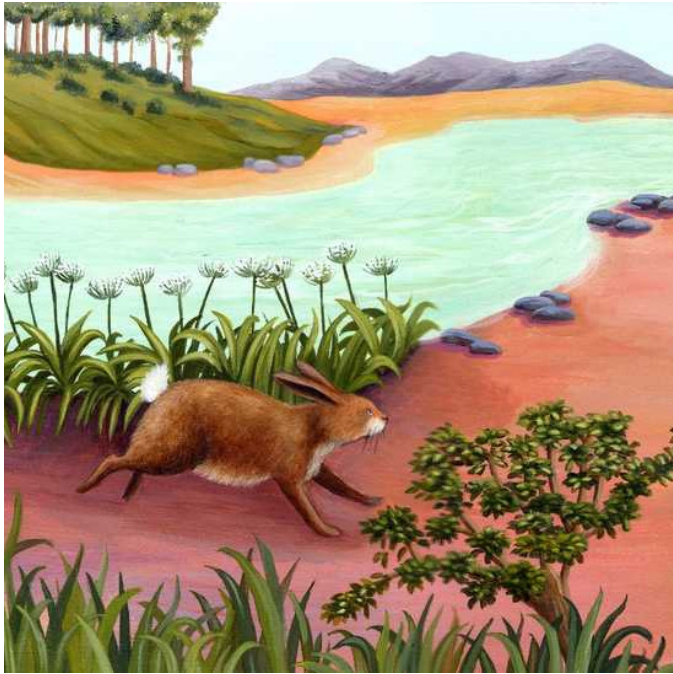
Written by: Basilio Gimo, David Ker
 Illustrated by: Carol Liddiment
 Translated by: Michelle Kim

This story originates from the African Storybook (africanstorybook.org) and is brought to you by Storybooks Canada in an effort to provide children's stories in Canada's many languages.



This work is licensed under a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3.0 International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3.0>





어느 날, 한 토끼가 강가를 걷고 있었어
요.

공이요요

그 강기에는 허마드 있었는데, 허마는
극마음, 허마드 있었는데, 허마는
극마음, 허마드 있었는데, 허마는
극마음, 허마드 있었는데, 허마는





하마는 토끼가 자기 옆에 있다는것을 모르고 토끼의 발을 밟아 버렸어요. 토끼는 비명을 질렀고 하마에게 소리쳤어요, "야 이 하마야! 너 지금 내 발 밟고 있는 거 안보여?"



토끼는 하마의 머리가 타서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마는 불이 두려워서 물밖으로 잘 나오지 않는 거래요.



그러고는 토끼가 불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저 하마가 풀을 먹으려고 물에서 나오면 불로 태워줘. 재가 나 밟았어!” 불이 대답했어요, “그래! 내 친구 토끼야. 너가 하라는 대로 할게.”



잠시후, 하마는 강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풀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이 났어요. 그 불꽃이 하마한테 붙어서 하마의 털을 태우기 시작했죠.